나주시, 중앙부처 잇단 방문…미래성장 동력 확보 총력

국비 확보·지역 핵심사업 지원 협의

윤병태 나주시장이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만나 국고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서는 등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전날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미래 성장사업과 교통 기반시설 확충, 관광 활성화, 교육 혁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임기근 차관과 조용범 예산실장, 박창환 예산총괄국장을 만나 2027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센터 구축(총사업비 245억 원), 고전력반도체 모듈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400억 원), 노안지구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109억 원) 등 주요 국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김이탁 제1차관과 홍지선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나주 구간 연결선 구축(총사업비 700억 원)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재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방문에서는 지역 교통망 확충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수직 인수위, 이웃사랑 실천

담양군복지재단(이사장 이정옥)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차상준)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35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새로운 군정의 출발을 기원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등 총 2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차상준 위원장은 "새로운 담양의 문을 여는 시점에서 위원들이 뜻을 모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 출범할 민선9기 담양군정 역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대한민국기록문화대상 청년·미래부문 대상

화순군청은 최근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민생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농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관리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 정책도 지속 추진 중이다.

화순군은 군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 '탄소모아 탄탄e' 운영

생활 속 녹색활동 인증하면 지역화폐로 전환… 연간 최대 20만 원

'탄소모아 탄탄e' 시범운영 홍보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6. 30일부터 군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플랫폼 '탄소모아 탄탄e'를 시범운영한다.

'탄소모아 탄탄e'는 군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저감 활동을 앱으로 인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플랫폼(앱)이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7세 이상 군민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탄소모아 탄탄e' 앱을 다운로드 후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단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천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미사용 ▲다회용컵 사용 ▲환경캠페인 참여 ▲로컬푸드 구매 ▲친환경 농자재 사용 ▲개인 정원 가꾸기 ▲농업용 시설 에너지 절감이다. 군민 1명당 연간 포인트 지급 한도는 도비 10만 원과 군비 10만 원을 합해 최대 20만 원이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한다. 적립한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서 시작된다"며 "군민의 작은 실천이 개인의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 기자

"여름 더위 물렀거라" 물놀이도 역시 장성군!

황미르랜드·상무평화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홍길동 테마파크 개장

장성군이 여름철을 맞아 지역 내 물놀이 시설과 수경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먼저, 최근 들어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황미르랜드 물놀이시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청소시간을 갖고, 이후에는 언제나 방문해도 된다. 단,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시설 정비를 할 예정이어서 물놀이를 할 수 없다.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 가동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매주 화요일에는 정화작업으로 인해 가동을 멈춘다.

올여름,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은 홍길동 테마파크다. 7월 17일부터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를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북하면 물통골 폭포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하며, 휴가철에는 평일에도 개장할 예정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장성읍 주민들에게 상쾌한 여름을 선사하고 있는 장성공원 경관폭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7시부터 9시 매일 두 차례씩 가동한다.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 사진 /장성군 제공

황룡강 인공폭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조명 시설이 가동돼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많은 방문을 당부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여름철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